

“메타버스(Metaverse)가 뭐길래?...K팝도 입성하네”

초월 뜻하는 ‘메타’·우주와 세계 가리키는 ‘유니버스’ 합성어
방탄소년단, ‘포트나이트’ 가상콘서트·블랙핑크, 아바타 사인회

지난해 9월26일 음악업계와 게임업계가 동시에 들쭉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게임 개발사 에픽 게임즈의 액션 빌딩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얄 모드 속에서 히트곡 ‘다이내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했기 때문이다.

파티로얄 모드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전투 없이 콘서트 또는 영화를 관람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 공간이다. 플레이어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다이내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관람하고, 안무를 따라했다.

지난해 미국 DJ 마시멜로와 미국의 합창가수 트래비스 스콧 같은 유명 뮤지션도 ‘포트나이트’에서 가상 콘서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스콧의 콘서트 첫날엔 1200만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Metaverse)’의 대표적 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와 세계를 가리키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최고경영자)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업무와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가 처음 등장한 건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시’에서다. 소설 속에서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해선 가상의 신체 ‘아바타’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 소설이 바탕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헤드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2018)에서 등장하는 디지털 가상현실인 ‘오아시스(OASIS)’도 그 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고, 뛰든지 할 수 있다.

게임과 현실 세계가 혼합됐던 ‘현실·박신혜’ 주연의 드라마 ‘알함브라궁전의 추억’ 속도 역시 메타버스의 하나다.

K팝 화두된 메타버스

이런 메타버스가 K팝을 비롯한 음악세계에서 화두가 됐다. 신기술에 익숙한 Z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맞물리면서 급부상했다.

포트나이트와 함께 대표적인 예가 제페토다.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글로벌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로 원하는 지도에 들어가 놀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 등이 적용된다. 지난해 9월 제페토에서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아바타의 팬 사인회가 열렸는데 무려 4600만명이 몰렸다.

제페토 이용자는 10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제페토의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2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페토에 YG엔터테인먼트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20억원, JYP엔터테인먼트가 5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아바타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해 선보인 신인 걸그룹 ‘에스파’의 실형이 그것이다.

한중일 멤버로 이뤄진 4인조 동아시아 그룹인데, 멤버별로 아바타를 설정했다. 에스파라

는 이름부터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를 표현한 ‘æ’와 양면이라는 뜻의 영단어 ‘에스펙트(aspect)’를 결합해 만들었다. ‘자신의 또 다른 자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은 메타버스 그 자체다.

지난해 이수만 SM프로듀서는 ‘제1회 세계문화산업포럼(WCIF)’에서 “에스파는 셀러브리티와 아바타가 중심이 되는 미래 세상을 투영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초월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의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메타버스 맞춤형 음악 콘텐츠 잇따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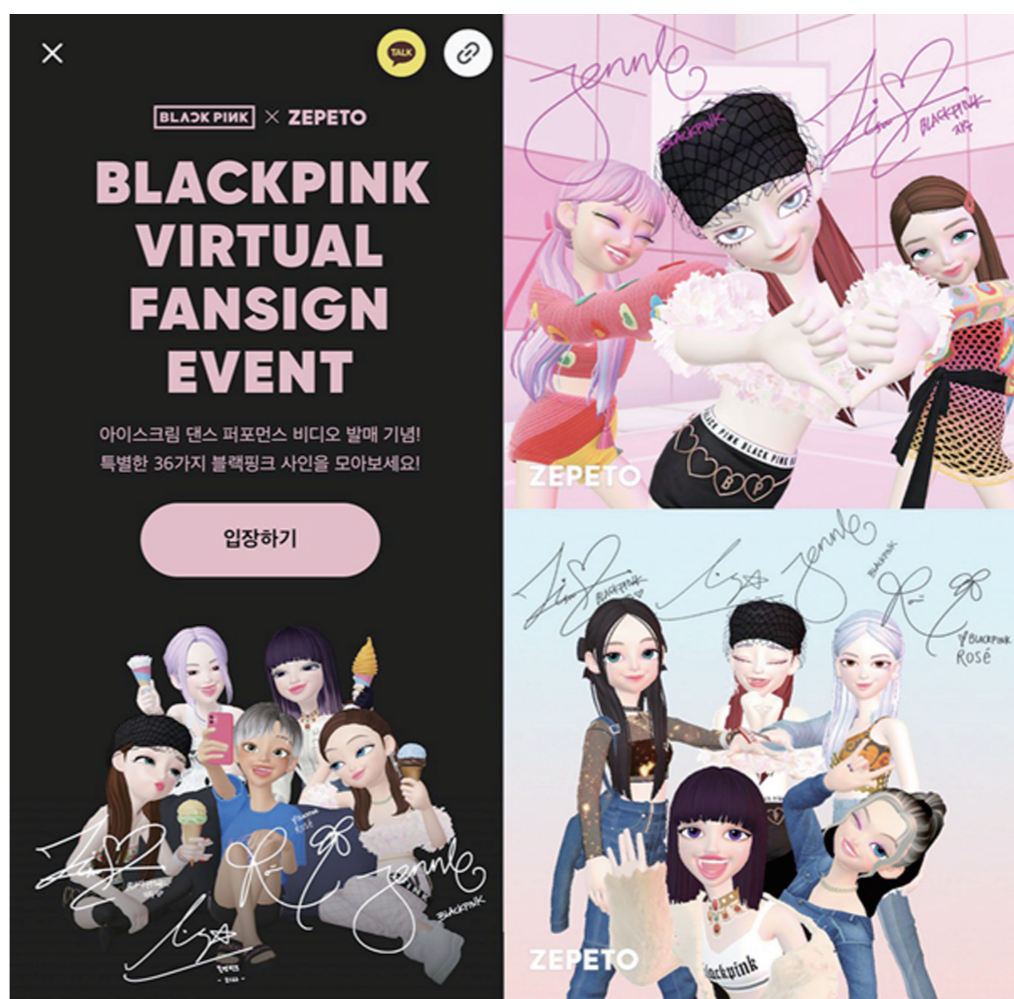
K팝의 다음 플랫폼은 ‘메타버스’로 향하고 있다.

미국 Z세대는 양대 놀이터로 통하는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이용자가 정육면체 블록 등을 이용해 건물 등을 세우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스로 만들고 설계에 익숙한 Z세대에 안성맞춤 공간이다. 로블록스 역시 이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즐길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스타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는 새 싱글 ‘홀리데이(Holiday)’ 발매를 기념, 로블록스에서 가상 콘서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물리 기반 렌더링, 안면 인식 기술, 최첨단 연출이 더해졌다.

이처럼 가상세계는 제한 없이 콘텐츠를 만들고 마음껏 공유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간 K팝의 확장성과 맞물린다. 세계 최초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를 여는 등 앞서 있는 IT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코로나19 시대에도 더 많은 이들과 만날 수 있다.

K팝 그룹 중 가상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실감음악 콘텐츠’를 선보인 팀도 있다. 그룹 ‘SF9’은 지니뮤직과 소집고 ‘SF9 VP 앨범’을 출시했다.



SF9가 기존에 발표한 ‘굿가이(Good Guy)’, ‘질렀어’ 등 5곡이 담겼다. 단순한 음원이 아닌, 각자의 곡은 ‘음악 공연’ 형태로 선보여진다. 팬들은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해 입체화면을 볼 수 있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HMD)’를 쓰고 1인치 시점으로 5개의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최근엔 메타버스에 디지털자산계의 화두인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적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메타버스에서 이용자가 아바타로 소통하고 아이템을 사고파는 등의 행위가 가능한데 NFT

기술이 더해지면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에서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안정화되면, 메타버스에서 앨범·콘서트 티켓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진다.

특히 콘서트의 경우 오프라인처럼 피켓팅(피가 튀는 티켓팅)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레미상 수상 밴드인 미국의 ‘킹스 오브 리온’은 NFT를 적용한 신작 앨범을 출시한다고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영웅, 로제·아이유 꺾고 음악중심 1위...“영웅시대 감사”

가수 임영웅이 ‘쇼!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일 오후 방송된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서 임영웅은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와 아이유의 ‘셀러브리티(Celebrity)’를 꺾고 1위에 올랐다.

임영웅은 1위 후보 중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놀라며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감사하다”며 “예전에 텔레비전을 봤을 때 주변에 동료 가수분들이랑 축하도 같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소 외로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만들어주신 상이라서 전혀 외롭지 않다. ‘영웅시대(펜클럽)’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쇼! 음악중심’에는 임영웅을 비롯해 슈퍼주니어, 로제, 제시, 펜타곤, 브레이브걸스, 온앤오프, 우즈(조승연), 에이티즈, 퍼플 키스, 싸이퍼 등이 출연했다.

곡명	가수	총점
On The Ground	ROSE	2045
Celebrity	아이유	3618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	5000
총합		8292

표준: 온앤오프, 우즈(조승연), 에이티즈, 퍼플 키스, 싸이퍼 등이 출연했다.

트와이스, ‘팬시’ 뮤비 4억뷰 돌파...통산 5번째

멜로우 무드 팝 댄스 장르로 트와이스의 음악적 변화 알린 곡

그룹 ‘트와이스’가 ‘팬시(FANCY)’ 뮤직비디오로 4억뷰를 달성했다.

20일 JYP엔터테인먼트 따르면 트와이스가 지난 2019년 4월 발표한 미니 7집 ‘팬시 유(FANCY YOU)’의 타이틀곡 ‘팬시’ 뮤직비디오는 지난 19일 오후 7시27분께 유튜브 조회 수 4억 건을 돌파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티티(TT)’, ‘라이키(LIKEY)’,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 ‘치어 업(CHEER UP)’에 ‘팬시’까지 통산 다섯 번째 4억뷰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팬시’는 멜로우 무드 팝 댄스 장르로 트와이스의 음악적 변화를 알린 곡이다. 파워풀한 안무, 과감한 곡 메시지, 화려한 비주얼 변신을 자랑했고, 강렬한 매력을 더해 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OOH-AHH)’ 하계부터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까지 총 14편의 모든 활동곡 뮤직비디오를 역대 부 반영에 올렸다. 지난 18일 기준 해당 뮤직비디오들의 유튜브 누적 조회 수 총합은 51억건을 넘어섰다.



앞서 트와이스는 여러 차례 제작 영상에서 “앞으로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고추리반’ 시즌2 제작...원년 멤버 그대로 간다

티빙 인기 방송 순위 TOP10 유지...‘대탈출3’ 뛰어넘어

티빙 첫 오리지널 ‘여고추리반’이 시즌2를 제작한다.

‘여고추리반’ 측은 20일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즌 2 역시 박지윤, 장도연, 재재, 비비, 최예나 5명과 제작진이 다시 한번 동침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고추리반’은 전국의 엘리트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세라여자고등학교’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몽친 추리반의 활약을 담은 미스터리 어드벤처 프로그램이다.

지난 19일 시즌1 최종화가 공개됐다.

특히 ‘여고추리반’은 ‘대탈출’, ‘더 지니어스’ 등 다양한 추리 예능 장르를 개척하며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정종연 PD가 새롭게 도전하는 OTT 콘텐츠이자 티빙의 첫 오리지널로 주목을 받았다.

매주 새롭게 공개된 회차가 티빙 인기 방송 순위에서 TOP10을 유지하고, tvN 대표 예능

‘대탈출3’의 VOD 시청자 수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연출을 맡은 정종연 PD는 “‘여고추리반’을 통해 제작진은 물론 출연진 모두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몽친 두 번째 시즌을 함께 하고 싶다는 공통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더 재미있고 새로운 이야기들로 두 번째 시즌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빙 관계자는 “‘여고추리반’은 드라마적 스토리텔링과 예능적 재미가 결합된 차별화된 작품성과 잠재력으로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의 출발을 알린 의미 깊은 작품”이라며 “티빙 이용자들이 보내주시는 뜨거운 인기와 성원에 힘입어 ‘여고추리반’ 시즌2 제작을 확정 짓게 됐다”고 전했다.

티빙은 첫 오리지널로 ‘여고추리반’을 선보인 데 이어 드라마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영화 ‘서복’ 및 로



드 다큐멘터리 ‘백종원의 사계’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 공개를 예고하고 있다.

고민시,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인정

“책임 통감” 사과

배우 고민시가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과 관련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고민시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글을 올리게 되는 점과 저의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과 관련해 심려 끼친 점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저를 응원해주시던 마음으로 제가 아니길 바랐던 분들도 있었을 테고, 저러는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떠한 부정 없이, 사진 속 인물은 제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제 스스로도 단순히 어렸다는 이유로, 성숙하지 못했던 지나간 시절의 과거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몰 흐르듯 씻겨

지는 것은 불투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실로써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때로는 말이 전부 아니고, 저의 진심이 다 전해지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민시의 미성년자 시절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술병과 술잔 등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고민시는 지난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드라마 ‘청춘시대2’, ‘라이브’, 넷플릭스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 ‘스위트홈’, 영화 ‘마리’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